

# 세주주보

연중 제15주일  
2020. 07. 12. (가해) 제2222호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마태 13,3)



『씨 뿌리는 사람』, 장 프랑수아 밀레, 1865년경, 미국 볼티모어 월터스 미술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 좋은 땅이 되도록 가꾸고 양분을 주자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원장 | 정석수 유스티노 신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의 초대에 근본적인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과 씨를 받아들이는 다양한 환경이 있습니다. 씨를 받아들이는 첫 환경은 길바닥과 새들입니다. 완전한 거부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입니다. 씨앗을 받아들이는 조금의 가능성은 있었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는 환경으로 이 역시 거부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환경은 가시덤불입니다. 이 환경 역시 단단한 땅처럼 개방하지 않는 모습이요, 자신의 생각으로 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환경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자신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선택으로 풍성한 결과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묵상하며 요한 묵시록(3,20)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복자 슈브리에 신부는 어느 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리를 차지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 소리에 나는 문을 어느 정도 열고 있는가? 문도 열지 않고 누구냐고 묻고 있는가, 아니면 문을 조금은 열고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문을 활짝 열고 앞에 서 계신 분을 환영하여 집으로 맞아들이는가?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은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는 땅처럼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문을 반쯤 열고 얼굴을 보되, 안으로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 역시 돌밭이거나 가시덤불처럼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그 집의 주인으로 고집하면서 자기 외에 아무도 집에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아 그 집과 자기 마음의 지배자로 남아 있는데, 긍정적 변화 즉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문을 활짝 여는 사람은 좋은 땅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될 희망의 땅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스승을 집안에 모시고 첫 자리를 내어드리며 기뻐하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밭 가는 사람처럼, 씨 뿌리는 사람처럼 지혜에 다가서서 지혜의 온갖 좋은 열매를 기대하여라. 정녕 지혜를 가꾸는 데는 적은 수고를 들이나 곧 지혜의 소출을 맛보리라.”(집회 6,19)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는 경작은 고생이 따르지만 끈기 있게 가꾸면 투자한 노력에 비하여 더 큰 결실을 맛보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필문**

##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구 생태환경위원회 간사 · 삼덕본당 | 장원철 임브로시오

지난해 12월 대구대교구 사제평의회를 통해 교구 내 각 본당에 생태환경위원회의 설치가 제안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각 본당의 설치가 연기되었고 최근에서야 7월 초를 기준으로 적지 않은 본당에서 생태환경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지난 6월 20일 구성된 우리 본당의 생태환경위원회는 설치까지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무엇보다도 구성원 확보가 쉽지 않았다. '생태'라는 단어가 평신도 대부분들에게 여전히 생소한 단어였고, 본당 내 시설관리와 연관된 기존의 시설환경위원회도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그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신자들 간의 모임과 만남이 제한되어 위원들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본당 생태환경위원회 신설과 관련하여 다행스러운 점은 먼저 '2020년 본당사목지침' 속에 "자연과 피조물을 인류 공동의 집으로 받아들이고, 가족처럼 돌보며 자연과 사귀시다."라는 실천사항이 들어가 있었다. 또한 지난 5월 한국천주교 주교단의 '기후위기 성명서'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찬미받으소서' 회칙 반포 5주년을 기념하는 각 교구의 행사 소개,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상의 멈춤'이 가져온 뜻밖의 깨끗해진 주위 생태환경의 사진들은 '지구 공동의 집 위기'라는 단어를 모두가 보다 쉽게 인식하게 했다.

본당 내에서 구성원 확보를 위해 설명할 때마다 대부분 "생태환경위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라고 물었다. 이때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창세 1,31)"라는 말씀처럼 기

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도 중요하지만, 우선 지구의 모든 피조물, 우리 주변의 산과 강, 숲과 나무, 풀꽃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며 "생태환경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먼저 가까운 곳에 있는 '한티가는 길'부터 천천히 같이 걸어보시죠?"라고 제안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 전파처럼 어느덧 모든 것이 사람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요?", "요즘 우리 생활이 과잉소비로 많은 것을 쉽게 버리지 않는지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가난'과 '절제'를 하지 않으면 점점 심해지는 지구 생태 환경 위기 등을 어떻게 할 것이며, 과연 자연과 학자들이 이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우리는 견딜 만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라고 묻기도 했다.

마침내 지난 6월 20일, 본당 내 10명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이 모아졌다. 막내 수녀님께서도 큰 관심으로 동참해 주신 가운데, 주임 신부님과 교구 위원장 신부님 집전으로 발대식을 겸한 미사가 이루어져 구성원 간의 첫 인사를 할 수 있었다. 7월 11일에는 각 본당에서 신설된 생태환경위원회의 대표자들 간에 첫모임이 열린다. 예전 최영수 대주교님 때 만들어진 교구 환경위원회가 '찬미받으소서'를 통해 '생태환경위원회'로 새롭게 변모된 가운데, 어떤 얘기들이 오고갈지 궁금해진다. '이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와 서로 무관하지 않음을 이번 만남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을까? **필문**

## 사순 시기에는 왜 ‘알렐루야’를 하지 않나요?

복음 낭독 전에 노래하는 ‘알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하여라!’라는 뜻입니다. 이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외치는 환호이기에(묵시 19,1-5 참조)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사순 시기’의 시작부터 파스카 성야 전까지 노래하지 않습니다.(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 28항 참조)

히브리 말로 ‘할렐’은 찬양하라는 뜻이고 ‘야’는 야훼(주님)의 약칭입니다. 알렐루야는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환호이므로 부활 시기에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바로 앞에 자신들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의미에서 알렐루야를 노래합니다. 이 알렐루야는 환호하는 노래이므로 일어서서 합니다.

알렐루야에 따라오는 구절은 일반적으로 복음에서 선택합니다. 사순 시기 시작부터 파스카 성야 전까지는 알렐루야 대신에 다음과 같은 환호를 합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예수 부활 대축일과 성령 강림 대축일에는 ‘부속가’를 바쳐야 하고, 성체 성혈 대축일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에도 부속가를 바칠 수 있는데 이는 알렐루야 노래 전에 노래로 하거나 낭송합니다.

## ‘보편 지향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원칙이 있나요?

‘보편 지향 기도’는 개인이 필요한 것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기도의 일반적인 순서와 내용으로 “교회에 필요한 일, 위정자와 온 세상의 구원, 온갖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견진, 혼인, 장례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합당한 지향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미사경본 총지침』, 70항 참조)

‘보편 지향 기도’는 자유로운 표현방식으로 바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도 지향은 간단명료하고, 자유롭고, 짙막하게 공동체 전체의 청원을 표현해야 합니다.(『미사경본 총지침』, 71항 참조) 따라서 개인적인 청원이나 신앙 고백, 교리 해설이나 설교와 비슷한 내용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매일미사』와 같은 전례 안내서에 실려 있는 보편 지향 기도는 이러한 기준에 합당한 기도를 바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참고해서 각 공동체가 스스로 준비한 기도를 바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편 지향 기도’는 또한 신자들이 미사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신자들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신자들은 이 기도로 말씀 전례 때 선포된 하느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세례 때 받은 사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미사경본 총지침』, 69항 참조)

출처 :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편찬 『미사 전례』



## 주문모 야고보 신부 (1752~1801년)

1752년 중국 강남의 소주부 곤산현에서 태어난 주문모(周文謨) 야고보 신부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모 슬하에서 성장하였다. 그러다가 스스로 천주교 신앙을 진리라고 생각하여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후 북경교구 신학교에 입학하여 제1회 졸업생으로 사제 서품을 받았다.

당시 북경의 구베아 주교는 조선에 성직자를 파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신앙심이 깊은 데다가 조선 사람과 닮은 야고보 신부를 조선 선교사로 임명하고, 성무 집행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였다.

야고보 신부는 1794년 2월에 북경을 떠나 압록강이 얼기를 기다려 요동 일대에서 사목을 하다가 12월 24일(음력 12월 3일) 밤 조선에 입국하였다.

한양에 도착한 야고보 신부는 계동(현 서울 종로구 계동 지역)에 있는 최인길 마티아의 집에 머물면서 한글을 배웠으며, 1795년 부활 대축일에는 신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미사를 봉헌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그의 입국 사실이 탄로나게 되었고 야고보 신부의 입국을 도운 밀사 윤유일 바오로와 집주인 최인길, 밀사 지황 등은 그날로 체포되어 포도청에서 혹독한 형벌을 받다가 모두 순교하고 말았다.

이때부터 주문모 야고보 신부는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성사를 베풀었으며, 신자들의 교리 공부와 전교 활동을 위해 명도회를 조직하였고, 교리서도 집필하였다. 그가 활동한 지 6년이 지나 조선 교회의 신자수는 모두 1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연이어 신자들이 체포되었고, 야고보 신부의 행방을 자백하도록 강요를 받거나 죽임을 당하자 야고보 신부는 '나의 양떼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하겠고, 순교함으로써 모든 불행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음력 3월 11일에 자수했다. 재판이 열리고 문초가 시작된 가운데서도 침착한 자세를 잃지 않고 모든 질문에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답하였다.

“제가 월경죄(越境罪, 몰래 국경을 넘나드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선에 온 것은 오로지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 예수님의 학문은 사악한 것이 아닙니다. … 남에게나 나라에 해를 끼치는 일은 십계에서 엄금하는 바이므로 절대로 교회 일을 밀고할 수 없습니다.”

군문효수형을 선고받은 야고보 신부는 형장으로 정해진 한강 근처의 새남터로 끌려와 칼날을 받으니, 그때가 1801년 5월 31일(음력 4월 19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49세였다. 신부가 순교할 당시 다음과 같은 기이한 현상이 있었다고 전한다.

“하늘이 본래 청명하였는데, 홀연히 어두운 구름이 가득 차고 갑자기 광풍이 일어 돌이 날리고 소나기가 쏟아져 지척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형 집행이 끝나자 바람과 비가 즉시 그치고, 하늘의 해가 다시 빛났으며, 영롱한 무지개와 상서로운 구름이 멀리 하늘 끝에서 떠서 서북쪽으로 흩어져 버렸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이사 55,10-11	제 2 독 서	로마 8,18-23	복 음	마태 13,1-23.
화 답 송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동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 성경과 함께 하는 즐거운 신앙생활 **성경통독 40주간**

기간: 9.3(목) ~ 2021.7.22(목)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12시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화합실

모집인원: 선착순 80명 / 신청비: 5만원

강사: 여한준 롯데로 신부(성서사도직 담당)

신청 및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053)250-3082

신구약 성경 전체를 40주간 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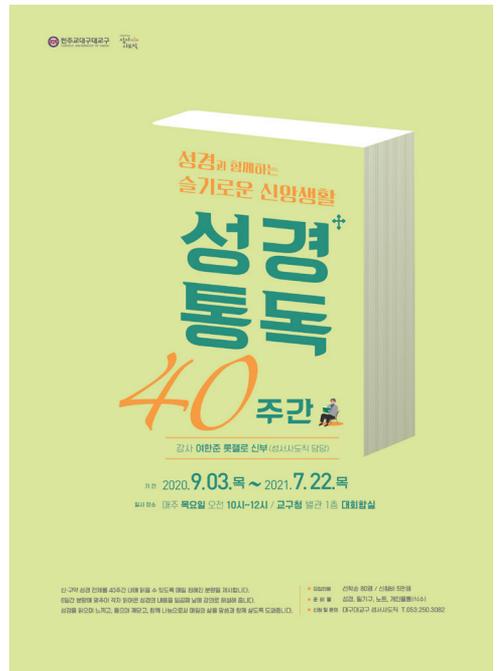
읽을 수 있도록 매일 정해진 분량을 제시합니다.

6일간 분량에 맞추어 각자 읽어온

성경의 내용을 일곱째 날에 강의로 해설해 줍니다.

성경을 읽으며 느끼고, 들으며 깨닫고,

함께 나눔으로써 매일의 삶을 말씀과 함께 살도록 도와줍니다.



이 중에 나의 모습은?

박성규 엘리지오



## 미사 안내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13일(월) 11:00 신평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13일(월) 11:00 계산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7월 13일(월) 11:00 죽도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7월 16일(목) 10:00 평화성당

## 8월 가나 강좌

**일시:** 8.9(일) 10:00 ~ 13:10 ※ 시간 엄수, 사전접수, 현장접수 불가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대상:** 혼인을 앞둔 미혼 남녀(예비 부부) / 25커플  
(신청인원 초과시 혼인 날짜를 우선으로 연락드립니다.)

**신청:** 본당 사무실 / **마감:** 7.30(목) / **참가비:** 2인 3만원

**입금:** 대구은행 504-10-131272-3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053)250-3077, 3114

※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지켜주시고, 유증상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태워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힌 사람  
당신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 이야기 <부활> 관람 이벤트

**상영관:** CGV (상영관 및 상영시간은 달라질 수 있으니 상영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인혜택:** <부활> 할인 이벤트 문구가 기재된 교구 모바일 앱이나 주보 지참 시 1인당 6,000원에 관람(현장발권에 한함)

**단체관람:** 20인 이상 단체 관람 시에는 1인당 6,000원에 관람이 가능(타쿠폰 및 이벤트 중복할인 불가, 현장발권에 한함)

**이 원 의 료 기**

혈관계·혈당계·당뇨소모성재료  
휠체어·주사기·보호대·뜸·부항기  
주열가·체온계·육창매트·환자용품  
안마기·실버카·산소치료가·찜질기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나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 2513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단단지역 7번출구

36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곽병원 사이 지하도 입구

Legend of Royal

**Rex Diamond**

보석 전문점 더 렉스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손금바  
(독주반지·감사선물·프로포즈 반지)

대표 임 선 우(마리아)

♥ 롯데백화점 대구역점 맞은편 왼쪽방향 ♥  
공양·진홍주저장 무료 | 영업시간: 11:00~19:00  
☎(053)426-7989 | 010-4439-9991  
♥ 예쁜 선물 증정 ♥

**신랑각시결혼**

전문작·초혼·재혼·만혼

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 환영  
이 원 교(요안나) | 27년 경력

053)471-0707 | 010-9688-7953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박익현 구심내과**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원장 박 의 현(안드레아)  
☎(053)252-1785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관절통, 스포츠 통증  
프롤로 재생 주사, 도수 치료

통증의학전문·원장 정 순 우 (요셉)  
범어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상가 3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8번 출구)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7.18(토) 14:00  
장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의: (010)3800-1579

**성모 승천 전례 피정**

일시: 8.14(금) 16:30~16(일) 13:30  
장소: 왜관피정의집  
참가비: 19만원, 대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행사 | 모임**

**예비신학교 하계 사제성소 피정**

중3~고2: 8.9(일) 9:00~17:00  
장소: 교구청 및 성모당  
고3~대학·일반(입시반): 8.13(목)~15(토)  
장소: 한티 / 자격: 예비신학교 등록생  
마감: 7.26(일) / 신청: 각 본당사무실

**한국평협 가정 선교 체험 공모전**

접수: 8.31(월)~9.29(화)  
주제: 가족 간 선교를 통해 하느님 사랑을 체험한 후기  
대상: 관심 있는 모든 신자  
<http://www.clak.or.kr>

**교육 | 모집 | 기타**

**2021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김정우 요한 신부) 수시 모집  
모집인원: 3,017명(수시 2,635명)  
정부지원사업비 연간 약 250억원  
학생의 미래에 투자하는 대학  
가톨릭추천전형 31명 / 문의: 850-2580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 ME 주말**

쇄신 주말: 7.25(토)~26(일)  
7월 ME 주말: 7.31(금)~8.2(일)  
8월 ME 주말: 8.14(금)~16(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난타·교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발성법, 오카리나, 제대꽃꽂이, 수지침, 섬유평예, 피아노, 사범자격과정꽃꽂이, 가곡성가, 창작사진, 원어민왕초보영어, 정리수납전문가과정 / 신청: 254-6115

**양업고등학교 가톨릭 좋은학교 연수**

일시: 8.1(토) 10:30~21:00  
대상: 좋은 학교에 관심 있는 학부모, 일반인  
접수: 7.20(월)부터 양업고 홈페이지  
문의: (043)260-5076  
2021학년도 입학전형 안내도 겸합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망설이는 환우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후원: 대구은행 505-10-218514-9  
문의: 650-3529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채용 | 안내**

**범어대성당 전기직 유경험자 채용**  
서류: 이력서, 자격증사본, 교적증명서, 본당주임신부 추천서  
근무지: 범어대성당  
문의: 범어대성당, 790-1300

**청도성모솔숲마을 자연치유센터 오픈**

대상: 자연 속에서 휴양이 필요하신 분 (암 환자 환영)  
문의: (054)373-3955 / (010)5225-4538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은영, 김혜화(유스티나)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2020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신부 추천서  
광고게재일: 8월 16일 / 12월 27일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사 김기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셋증권대우 9층  
☎ (053)257-8875  
[www.kisaneye.co.kr](http://www.kisaneye.co.kr)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백두병원**  
SINCE 1975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백억두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유천치안센터 옆 T. 425-5919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대장 내시경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 (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35년 경험과 기도로 치료하는  
**달성피부과**  
Since 1985  
아토피·만성피부  
보톡스·탈모  
손재경(다미아노) · 김인주(베지나)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2번출구

**이애현 피임산부인과**  
www.piumclinic.co.kr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험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오실금클리닉  
산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

**가람소방방재(주)**  
◆ 소방시설점검 ◆ 소방안전관리대행  
◆ 종합정밀점검 ◆ 소방관련기술교육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전문공사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앤씨비즈니스워 B108호  
대표전화 053)600-8485~9 HP 010-4245-0507  
대표이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